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과 사회적 자본*

송경재**

목 차	
I.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등장	1. 연구방법론 2. 변수의 설정과 가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결과	IV. 분석
1.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1. 표본 개요
2.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2. 가설의 검증
III. 연구방법론 및 가설	V. 연구의 요약 및 토론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21세기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networked social citizens)의 등장에 주목하고, 이들의 정치적 행태와 한국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제시된 개념인 소셜 시티즌 프레임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로 구축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을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의 사회적 자본 접근법(social capital approach)으로 해석하여 정치 행태에서의 시민 참여(civil participation)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저신뢰의 개인지향의 저항적 참여집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치참여의 동학 차원에서 분석한다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정치참여 행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구조의 사회적 자본을 재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8018665). 논문의 세심한 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조교수.

것이다.

▪ 주제어: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정치참여, 사회적 자본, 정보사회, 저신뢰

I.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networked social citizens)의 등장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가 상용화된 지 20년이 경과하고 있다. 상용화 이전에는 아르파넷(ARPANET)이 연구용 네트워크(ARPA-INTERNET)와 군사용 네트워크(MILNET)로 사용되었던 네트워크가 분리되면서 인터넷은 비약적인 확산을 하게 되었다(Castells 2001, 24-51).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유선과 무선 인터넷망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에 접속한 노드(nodes)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도 복잡해져 바라바시(Barabási 200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산업사회의 전기나 수도네트워크와 달리 분산된 구조를 가진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 free network)를 특징으로 한다.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정보사회의 초기에 네트워크는 방송 통신장비의 기술적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으며 정보사회학자 카스텔(Castells 2001)은 21세기 정보사회를 산업사회와 다른 인터넷 네트워크사회로 특징짓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혁명을 경제·사회·문화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Jones 1999; 민병원 2004). 이렇듯 인터넷 네트워크는 사회 모든 영역에 확산되고 있고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앱 스토어,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 등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으며, 문화적으로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을 만들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인터넷 네트워크의 활용은 더욱 놀랍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치 캠페인이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웹 2.0 환경에 맞는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블로그와 유튜브(YouTube.com), 트위터(Twitter.com) 등을 활용해 지지집단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콘텐츠와 트위터의 리트윗,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이 공화당 후보를 압도해 이미 ‘인터넷 대통령’이란 말이 회자되었다(Delany 2009, 9-10; 송경재 2010에서 재인용). 2008년의 성과로 민주당에서는 2012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영국 총선에서도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등 주요 정당은 경쟁적으로 SNS를 활용한 소셜 네트워킹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에서도 201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SNS 캠페인을 벌였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SNS에서 자주 거론되는 후보의 긍정, 부정 글을 분석하는 툴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정치권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SNS활용은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낮은 거래비용(low transaction cost)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자발적인 결사체 형성을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을 용이하게 함으로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네트(net)형 시민운동의 등장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이런 장점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는 공론장(public sphere)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새로운 정치참여의 기제(mechanism)로 부각되기도 한다(Rheingold 2003; 조화순·송경재 2004; 송경재 2005).

본 연구는 21세기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등장에 주목하고, 이들의 정치적 행태와 한국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제시된 개념인 소셜 시티즌 프레임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로 구축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을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 1993; 2000)의 사회적 자본 접근법(social capital approach)으로 해석하여 정치

행태에서의 시민 참여(civil participation)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셜 시티즌 개념을 처음 정치학계에 사용한 학자는 싱클레어(Sinclair 2012, vi-x vi) 이다. 싱클레어는 소셜 시티즌의 민주주의 참여 제고 역할에 주목하고 시민사회의 변화, 그리고 개인과 집합으로서의 소셜 시티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증명한다. 그녀는 최근 미국 선거에서 조사된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셜 시티즌을 개념화하고, 이들의 활동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현 단계의 민주주의가 개인 참여(individual participation)와 집합 참여(collective participation)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셜 시티즌은 정치적 네트워크(political network)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식의 참여행태를 보인다고 보았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문제의 제기를, II 장에서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정의를 규정하고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III 장에서는 변수의 조작화와 가설을 설정하고, IV 장은 구체적 가설의 검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V 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함의와 정치적 의미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결과

1.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앞서 I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셜 시티즌이란 개념은 2012년 싱클레어(Sinclair 2012)에 의해 도입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 시민에 대한 논의도 존재했다. 초기 네트워크 사회를 예견한 카스텔(2001)이나 라인폴드(2002)와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명한 군중(smart mobs)의 시민운동 방식에 주목한 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세대에 주목한 탭스콧(Tapscott 2008)은 SNS로 새롭게 네트워크화된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로더(Loader 2007) 역시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참여와 효능

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특히 로더는 전통적인 방식의 시민운동 범주가 아닌 이른바 인지된 정치의 영역이 확장되었는데 환경, 소비자운동, 젠더, 글로벌 정의 등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네트워크인 SNS로 연계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학자들은 비록 각자 주안점은 다르지만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된 시민의 등장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싱클레어에게 연계된다. 싱클레어는 소셜 시티즌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회관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적 네트워크가 형성됨에서 찾았다.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와는 달리 친구, 직장, 이웃 등의 새로운 네트워크 타입의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취미와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이 과거에 비해 새롭게 구성된다고 보았다. 실제 ICT가 발전하면서 클래스메이트닷컴(Classmates.com)과 식스디그리닷컴(SixDegree.com)이 등장했고 네트워크 형태의 새로운 사회관계가 구성되었다. ICT는 증가하는 노드로 인해 복잡해졌고 스마트 디바이스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관계와는 차별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Shirky 2008). 학자들에 따라서 이들을 세대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집단화하여 표현했지만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SNS로 형성된 관계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Sinclair 2012, 2-3). 미국의 소셜 시티즌을 연구한 싱클레어(2012, 149-151)는 소셜 시티즌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네트워크 확대 때문으로 간주했다. 싱클레어는 미국의 소셜 시티즌의 특성을 적극적인 참여와 운동을 통해 선거에서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참여와 엘리트의 정치참여에도 영향을 주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그녀의 연구에는 몇 가지 보완할 문제도 있다.

첫째, 그녀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도 분석대상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사회 관계망의 정치적 효과 연구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싱클레어가 인터넷이나 SNS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ICT가 긍정적인 정치 참여효과가 있으며 소셜 시티즌이 ICT를 활용하는 참여도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녀가 분석한 대상은 지역의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정치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SNS에서 새롭게 형성된 소셜 시

티즌에 대한 해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사회관계망의 네트워크 버전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사회관계망 집단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둘째, 싱클레어는 소셜 시티즌을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를 활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소셜 시티즌의 특성을 추출한 것에 머물렀다. 실제 싱클레어는 소셜 시티즌의 특성을 정치 네트워크에서의 개인 참여(individual participation)와 집합 참여(collective particip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실제 분석의 결과에서는 소셜 시티즌의 선거 영향력, 엘리트 정치참여의 역할 강화, 유권자 선택에 영향, 당 정체성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즉 소셜 시티즌이 정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소셜 시티즌이 왜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싱클레어의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에 근거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든 또래집단과 지역 공동체 사회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포괄적 범주를 다루고 있다(Milgram 1967; Barabási 2002).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온라인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들만의 정치행태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싱클레어의 연구가 모든 또래집단과 지역 공동체를 망라했다는 범주의 광범위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소셜 시티즌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개념 정의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서비스인 SNS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집단이며, SNS로 연계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을 지칭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시민참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수평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무형의 사회적 재화인 사회적 자본이론을 적용했다.

2.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사회적 자본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근간으로 전개

된다. 사회적 자본을 정치학에 체계화 시킨 퍼트남은 시민성과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시민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강한 시민사회를 가질수록 높은 시민성이 사회화 되고(socialization function), 연계와 협력의 수평성, 신뢰, 규범이 수립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선순환되어 사회적 자본이 강하게 구축, 축적될수록 시민참여 역시 강화된다고 보았다(Putnam 2000; Stolle & Rochon 1998; Diamond 1999, 227).

한편, 사회적 자본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연구는 역사적으로 4명의 학자들이 거론된다(송경재 2010 재인용).¹⁾ 첫 번째는 19세기 초 미국을 방문한 토크빌(de Tocqueville 2003)이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찾았다. 그리고 토크빌은 신생국가인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감명을 받고 자발적 시민의식, 단체구성의 기술(art of association)과 미국 시민결사체의 민주적 성숙을 유럽에 소개했다. 최근에도 사회적 자본 연구자들은 실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재해석하고, 이론적으로 토크빌의 지적을 반영한 연구 흐름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네오 토크빌리안(neo-Tocquevillian)’이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공헌을 한 학자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이다. 그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자본을 해석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취득과 인지적인 제도화된 관계에서 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영속성 있는 네트워크의 소유와 연계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규정한다(1986, 248-249). 따라서 사회에서 형성되는 자산의 형태로서의 자본을 물질, 문화,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세 번째 학자는 제임스 콜먼(James Coleman)으로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무형의 자본으로 규정하고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와 사회적 관계 또는 연결망에 대해서 주목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관계에서 배태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

1)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이기는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적 자본 연구를 다룰 때는 토크빌을 제외하고 3명의 학자들을 언급하기도 한다.

년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한다. 즉 사회적 자본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강조하고, 개인과 집단사이의 관계가 계승되는 것으로 집합체적 특성으로 해석한 것이다(Coleman 1990).

네 번째로서 정치학적인 해석을 시도한 이는 앞서 언급한 퍼트남(1993; 2000)이다. 퍼트남은 미국과 이태리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특성, 시민참여를 분석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신뢰의 형성과 수평적 네트워크,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이 형성되어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이 용이하게 된다고 강조한다(Norris 2002).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참여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선순환으로 학습효과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2000년에 미국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전세계에서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퍼트남의 연구는 이후 사회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최근 사회적 자본 연구는 ICT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퍼트남(2000)이 연구에서 ICT가 기존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해체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쇠퇴와 공동체의 해체를 우려했다.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ICT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ICT가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퍼트남은 TV와 전화를 위시한 ICT가 기존의 오프라인 공동체 간의 연계를 해체하여 시민참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해체에 주목하면서 TV와 전화, 교통의 발달에 따른 핵가족화는 결국 사회적 자본을 쇠퇴시키고 시민참여 역시 감소될 것을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후속 연구 결과 많은 연구자들은 퍼트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한다. 지역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ICT 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쿠안하세와 웰만(Quan-Haase & Wellman 2002)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오프라인 현실에서의 연대와 신뢰, 협력에 긍정적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만 사회적 자본 형성만이 아니라 현실 시민참여,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보완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의 연구 외에도 국내외에서 많은 학자들이 퍼트남의 ICT가 사회적 자본을 쇠퇴할 것이란 지적을 비판하고 있다. 또 콰노진과 홀버트(Kwak & Holbert 2001)도 미국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 이용과 공동체 활동 참여, 상대방에 대한 신뢰, 생활에서의 만족감 등 3가지 요소에 대한 실증연구를 했다. 그 결과, 정보 이용을 위한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 자본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참여 간에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구도 퍼트남의 견해와는 다른 논의가 많이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서진완과 박희봉(2003)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있으며 시민참여적인 속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에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SNS 등장에 따라 연구자가 정의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커뮤니티 연구를 넘어 새로운 네트워크화된 존재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엘리슨과 스테인필드, 램페(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의 연구이다. 이들은 SNS를 사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속형(bonding)과 연계형(bridging) 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을 증명한다. 이들은 SNS의 대표적인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com)의 친구들(friends)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으로 해석하여 개인과의 연계와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프레이저와 두타(Fraser & Dutta 2009)도 SNS의 사용자들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지역 내의 연고를 강하게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과 사회적 자본 연구로는 추바오진(Chu Baojun 2014)이 있다. 그는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자들을 설문조사하여 그들의 친교활동, 시민참여, 사회운동, 의견참여 등이 활발한데 그는 이를 참여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보았다. SNS 이용이 미치는 오프라인 공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SNS 사용자들은 참여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적인 특성으로 인해 친교활동, 의견참여 등은 활발한 반면 사회, 정치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소연과 이상우(2012)는 트위터(Twitter.com)와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각 SNS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구분하고 각각의 정치참여 양식의 차이를 발견했다. 연구에서는 트위터 사용자들에 비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더욱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참여지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정치참여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민(2013)은 스마트기기 및 SNS의 활용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기기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교량적 사회적 자본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반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SNS의 활용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는 인과성이 없지만 사회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최향섭 등(2008)의 연구에서도 ICT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ICT를 이용한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해 ICT를 활용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송경재(2010) 역시 미국 SNS 사용자 집단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한바 있다.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들이 협력과 네트워킹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신뢰가 형성되고 참여 지향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류정호(2010)는 사회적 자본이 온라인상에서도 형성된다는 가정 하에 온라인 사회자본이 인터넷과 현실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SNS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나타나고 정치참여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는 첫째,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에 대한 분석보다는 SNS의 사회적 자본 유형 분석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SNS 사용에 따른 정치참여와의 인과성에만 주목하고, ICT가 정치참여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세부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론을 적용하

여 공적신뢰와 일반화된 사적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네트워크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을 투입하여 그 원인변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둘째, 최근 ICT가 만들어낸 또래 네트워크(peer network)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회관계의 온라인화가 아닌 온라인에서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사회 네트워크 관계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Ⅲ. 연구방법론 및 가설

1. 연구방법론

ICT가 발전함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시민참여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범위 역시 단순한 정치과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행동과 게임이론, 그리고 공동체 민주주의적인 해석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접근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정치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ICT로 형성된 새로운 네트워크화된 사회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ICT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장점과 단점만을 부각시키기보다는 ICT로 형성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정치적 의미와 이들의 동학을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정치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은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 설문조사는 2014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9명을 조사했다. 표집 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주관했다. 표본의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7\%$ Point를 기록했다. 수집된 표본은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 다중회귀분석, 삼원분산분석 등을 사용했다.

2. 변수의 설정과 가설

우선,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의 변인을 조작화하였다. 첫째,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뢰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된다(Newton 2009). 사회적 자본은 무형의 사회공공재이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집단내의 결속형 신뢰(bonding trust)가 아닌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인 믿음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신뢰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므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이동원·정갑영 외 2010). 선행 연구자들은 신뢰의 영역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유형화했다(Uslaner 2010; Newton 2009). 이러한 방식은 신뢰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대상의 유형과 사회적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들을 추출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인 신뢰 두 가지를 조작화하여 측정할 것이다. 연구에서는 우슬러너의 신뢰 구분을 적용하여 사적신뢰는 타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적용한 일반화된 타인신뢰를 측정하여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신뢰는 신뢰를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제도 및 공공의 신뢰를 측정할 것이다(이동원·정갑영 외 2010). 구체적인 질문은 (1)지나가 는 타인에 대한 신뢰,²⁾ (2)역대정부에 대한 신뢰³⁾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공동체에 대한 호혜성의 규범이다. 뉴튼(Newton 1997, 575-586)은 일반적 호혜성이란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되돌아오며,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성립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서진완·박희봉 2003, 12; 이동원·정갑영 외 2010).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호혜성의 규범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 중에서 공동체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조작화된 정의에 기초하여 (1)호혜성의 규범을 공동체 이익과 개인이익의 중요성 여부를 측정했다(NESF 2003; Putnam 2000).⁴⁾

2)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1=매우 신뢰한다, 4척도)

3)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1=매우 신뢰한다, 4척도)

종속변수로서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특히, 최근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정치참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승중과 김혜정(2011)은 다양한 정치참여의 유형에 대해 정의하면서 관습화 정도에 따른 분류와 제도화에 의한 분류, 합법성의 정도에 의한 분류로 구분했다. 각각의 논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반즈와 카아스(Barnes & Kaase 1979, 152-15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행위에 있어서 정치체제의 참여에 있어서 합법적인 영역과 비합법적인 영역 또는 제도화된 영역과 비제도화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관습화 정도에 따른 분류와 제도화에 의한 분류, 합법성의 정도에 의한 분류 등의 공통의 영역으로 두 가지를 추출하였다. (1) 가장 최근의 투표참여와 ii) (촛불집회 등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참여를 정치참여의 변인으로 적용한다(Milbrath & Goel 1977; Verba & Nie 1972; Ester & Vinken 2003, 659-680; 윤성이·송경재 2010 재인용).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 소득, 교육, 이념별 변인을 보완했다. 각각의 변인별 차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소득과 교육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립셋(Lipset 1960)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은 사회의 부, 산업화, 도시화, 교육 등에 의하여 측정되며, 이는 정치의 민주주의를 촉진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시민참여에 어떤 관계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는 구체적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이 과연 그렇지 않은 시민들과 정치참여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들이 정치참여에 어떤 인과성이 있는지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4)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 4척도)

의 각변인들이 정치참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가설 1: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사회적 자본이 강할 것이다.

가설 2: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 3: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와 인과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의 변인은 정치참여에 상호작용할 것이다

IV. 분석

1. 표본 개요

표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표본 집단은 709명이다. 이 중에 남성 352명(49.6%), 여성 357명(50.4%)이다. 학력은 대재/대졸이 가장 많은 332명(46.8%)이고 다음은 고졸로 199명(28.0%)이다. 중졸 이하도 112명(15.8%)이며, 대학원 재학 이상은 57명(8.1%)로 나타났다. 소득은 201-400만원이 가장 많은 204명(28.7%)이었고, 그 뒤를 200만원 이하 174명(24.5%), 401-600만원이 160명(22.6%)으로 집계되었다.

표본 집단에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수는 371명이다. 이들을 세분해 보면 남성 170명(45.9%), 여성 201명(54.1%)이다. 연령은 19-29세가 109명(29.2%), 30대 81명(21.7%), 40대 86명(23.2%), 50대 66명(17.7%), 60대 이상 31명(8.2%)이다. 학력은 대재/대졸이 가장 많은 225명(60.6%)로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학력이 전체 표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졸 이하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 집계되었다. 소득은 전체 표본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 표본의 개요

구 분		전체 표본 (%)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
합 계		709	371
성	남성	352 (49.6%)	170 (45.9%)
	여성	357 (50.4%)	201 (54.1%)
연령	만19-29세	127 (17.9%)	109 (29.2%)
	30대	137 (19.3%)	81 (21.7%)
	40대	155 (21.9%)	86 (23.2%)
	50대	139 (19.6%)	66 (17.7%)
	60대이상	151 (21.3%)	31 (8.2%)
학력	중졸 이하	112 (15.8%)	11 (2.9%)
	고졸	199 (28.0%)	96 (25.9%)
	대재/대졸	332 (46.8%)	225 (60.6%)
	대학원 재학 이상	57 (8.1%)	37 (9.9%)
	모름/무응답	9 (1.3%)	2 (0.6%)
소득	200만원 이하	174 (24.5%)	36 (9.7%)
	201-400만원	204 (28.7%)	111 (29.8%)
	401-600만원	160 (22.6%)	119 (31.9%)
	601-800만원	26 (3.6%)	14 (3.9%)
	801만원이상	23 (3.3%)	20 (5.4%)
	모름/무응답	123 (17.3%)	71 (19.2%)

2. 가설의 검증

(1) 사회적 자본의 차이 분석

먼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을 변인으로 일반인들과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서도 정의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네트워크에 익숙한 참여적 세대로서 본 연구에서는 SNS의 사용으로 구분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을 실시했다.

첫째, 지나가는 타인에 대한 신뢰인 일반화된 신뢰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이 통계적으로 불신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 $\chi^2=25.780$, $p=0.000$). 특히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230명(62.3%)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SNS를 사용하지 않은 이들의 수치인 169명(5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높다. 특히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도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1.3%에 불과해, 비사용자들이 5.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공적신뢰를 의미하는 역대 정부 신뢰변인 역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 $\chi^2=51.444$, $p=0.000$). 결과는, 일반화된 타인신뢰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공적인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합은 211명으로 56.8%였다. 반면 SNS 비사용자들은 128명으로 37.8%에 불과했다. 19.0%p나 차이가 발생했다.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공적신뢰는 SNS 비사용자들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SNS 비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에 비해 공적인 영역에서의 신뢰수준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 교차분석

구분	Pearson χ^2	p	평가	해석
NSC * 일반화된 타인신뢰	25.780	0.000 (***)	채택	- 네트워크 소셜 시티즌은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강함
NSC * 공적신뢰	51.444	0.000 (***)	채택	- 네트워크 소셜 시티즌은 정부불신이 강함
NSC * 호혜성의 규범	34.455	0.000 (***)	채택	- 네트워크 소셜 시티즌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함 - 그러나 공동체 이익을 선호하는 비중이 68.5%로 높음

< 0.1, * < 0.05, ** < 0.01, *** < 0.001

셋째, 호혜성의 규범을 분석한 결과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이 SNS 비사용자들보다 개인의 이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 $\chi^2=34.455$, $p=0.000$).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이 비사용자들에 비해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100명으로 26.9%로 비사용자들에 비해 6.5%p 많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SNS비사용자들보다 개인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것이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차이임을 확인해준다.

(2) 정치참여의 차이 분석

두 번째 가설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과 SNS 비사용자 집단의 정치참여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관습적인 참여인 6.4 지방선거 참여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참여가 SNS 비사용자들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t=-2.566$, $p<0.01$). 평균을 살펴보면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1.76이었으며 비사용자들은 1.85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들의 관습적인 참여가 비사용자들에 비해서 낮지만 평균이 중위수(median)인 1.5보다 높다. 이는 비록 통계적으로 SNS 비사용자들보다 낮은 참여 수준이지만 중위수보다는 높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참여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인 SNS 사용자들이 높은 참여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6.122$, $p<0.001$).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평균은 1.81인 반면 비사용자들은 1.39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들이 적극적인 집회 및 시위참여지향적임을 확인해 준다.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들의 이러한 참여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다이아몬드와 플래트너(Diamond & Plattner 2012, x x x iii)는 SNS가 자유화 기술(liberation technology)이라고 평가하면서 중동에서 SNS는 시민저항 시위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집결시키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

유화 기술은 권위주의국가의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실제 한국에서도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비사용자들보다 활발한 집회 및 시위참여적인 것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 정치참여의 차이 t-test

	구분	N	평균	t	p
6.4 지방선거 참여 (2=투표참여)	SNS 사용	371	1.76	-2.866	0.004 (**)
	SNS 비사용	338	1.85		
집회 및 시위참여	SNS 사용	371	1.81	6.122	0.000 (***)
	SNS 비사용	338	1.39		

< 0.1, * < 0.05, ** < 0.01, *** < 0.001

(3) 사회적 자본 변인과 정치참여

구체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표본집단에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만을 2차 추출하여 표본을 만들었다(N=371). 그리고 종속변인은 투표참여와 집회 및 시위참여 등의 두 개의 회귀방정식을 도출했다.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투표참여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변인을 일괄 투입(enter)한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투입변인은 조작화한 것과 같이, 사회적 자본의 신뢰 2변인, 호혜성의 규범 1변인, 그리고 사회·경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의 4변인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절성 F값은 12.503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²=0.179로 도출되었다.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D-W)의 자기상관은 없다.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투표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은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p<0.05), 고연령(p<0.001), 고학력(p<0.05), 저소득(p<0.001)이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자본의 변인인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투표참여 지향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공적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은 투표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타인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토크빌과 퍼트남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나가는 타인에 대한 믿음은 사회의 건강성이자 사회 구성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화된 타인신뢰는 사회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둘째, 사회경제변인은 연령과 학력, 소득이 유의한 변인으로 산출되었다. 먼저, 고연령과 고학력의 투표참여는 일반적인 정치참여 이론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저소득의 투표참여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집회 및 시위참여 모델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현실에 대한 안주보다는 변화를 추구한다. 이런 요인이 투표참여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비중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β 는 변인 별로 차이가 있다. 연령변인이 33.3%이고 소득이 19.7%, 일반화된 타인신뢰가 11.4%, 학력이 10.7%이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성별과 공적신뢰가 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투표참여 다중회귀분석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투표참여			
	B	표준 β	t	유의확률
(상수)	1.331		8.902	0.000 (***)
신뢰				
일반화된 타인신뢰 (1=매우불신)	0.047	0.114	2.274	0.024 (*)
공적신뢰 (1=매우불신)	-0.034	-0.071	-1.447	0.149
호혜성의 규범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1=공동체 이익 매우중요)	0.004	0.009	0.188	0.851
사회경제 변인				
성별 (1=남성)	0.060	0.071	1.492	0.136
연령	0.109	0.333	6.350	0.000 (***)
학력	0.607	0.107	2.185	0.030 (*)
소득	-0.502	-0.197	-3.805	0.000 (***)
N	371			
F (Sig)	12.503 (***)			
Adj R ²	0.179			

< 0.1, * < 0.05, ** < 0.01, *** < 0.001

두 번째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집회 및 시위참여 모델분석이다. 회귀분석 결과, 모델의 적절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집회 및 시위참여는 $F=3.154(p<0.01)$ 이었고 결정계수 $R^2=0.039$ 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 변인들 중에서는 일반화된 타인신뢰가 강할수록 ($p<0.05$), 정부를 불신할수록($p<0.1$) 적극적인 집회 및 시위참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적신뢰의 불신이다.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치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집합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지향적이다. 그리고 SNS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집합행동을 하기 좋다. 실제 미국의 월가 점령시위와 한국의 2008년 촛불시위에서도 SNS를 이용한 집합행동이 강하게 나타난 사례가 있다.

둘째, 사회경제 변인은 고학력($p<0.01$)과 저소득($p<0.05$)일수록 시위참여에 적극적이다. 고학력은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적극적인 참여를 교육을 통해서 체득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투표참여와 마찬가지로 높은 참여를 한다. 소득 역시 앞서 분석에서와 같이 저소득층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찬성보다는 기득권층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은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를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실제 다이아몬드와 플래트너(Diamond & Plattner 2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동의 민주화의 중요한 원인도 경제 불안이고 주도도 대학생이라는 점과 월가 점령시위에서도 주축이 취업난에 시달리던 젊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경제변인에 대한 해석은 가능할 것이다.

셋째, 표준화된 β 는 학력과 소득, 일반화된 신뢰가 높게 도출되었다. 학력이 16.9%, 소득이 11.7%, 그리고 일반화된 타인신뢰는 13.2%로 산출되었다.

그렇다면 이상의 결과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설에서 설정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의 변인이 정치참여에 상호작용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삼원분산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할 것이다.⁵⁾

<표 5>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집회 및 시위참여 다중회귀분석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집회 및 시위참여			
	B	표준β	t	유의확률
(상수)	1.145		3.094	0.000 (***)
신뢰				
일반화된 타인신뢰 (1=매우불신)	0.124	0.132	2.431	0.016 (*)
공적신뢰 (1=매우불신)	-0.097	-0.090	-1.678	0.094 (#)
호혜성의 규범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1=공동체 이익 매우중요)	0.001	0.001	0.020	0.984
사회경제 변인				
성별 (1=남성)	0.146	0.075	1.461	0.1345
연령	-0.033	-0.044	-0.774	0.439
학력	0.243	0.169	3.196	0.002 (**)
소득	-0.071	-0.117	-2.098	0.037 (*)
N	371			
F (Sig)	3.154 (**)			
Adj R ²	0.039			

< 0.1, * < 0.05, ** < 0.01, *** < 0.001

분석 결과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변인은 개별 변인들보다는 사회적 자본의 3변인들이 모두 투입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사회적 자본의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 등 3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이라는 것은 1개의 변인이나 2개의 상호작용은 종속변인인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3변인 모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방향성이 플러스(+) 방향이므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신뢰가 높고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할 때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5) 삼원분산분석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이 3개일 경우 각 변인의 영향도와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는 통계기법이다. 이 분석은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표 6> 사회적 자본변인과 투표참여 상호작용성

소스	중속변수: 투표참여		
	제Ⅲ유형 제공합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7.767	1.794	0.000 (***)
절편	232.213	1523.686	0.000 (***)
일반화된 타인신뢰	0.262	0.430	0.787
공적신뢰	0.490	0.803	0.524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0.483	0.793	0.530
일반화된 타인신뢰*공적신뢰	0.788	0.517	0.878
일반화된 타인신뢰*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2.413	1.319	0.205
공적신뢰*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1.293	0.707	0.745
일반화된 타인신뢰*공적신뢰*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3.818	1.789	0.038 (*)

R 제곱 = 0.242 (수정된 R 제곱 = 0.107)

< 0.1, * < 0.05, ** < 0.01, *** < 0.001

다음으로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변인과 집회 및 시위 참여의 상호작용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집회 및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반화된 신뢰($p < 0.1$)와 공적 신뢰($p < 0.01$), 그리고 상호작용성은 공적신뢰*호혜성의 규범($p < 0.001$)과 3 변인을 모두 투입한 일반화된 타인신뢰*공적신뢰*호혜성의 규범($p < 0.01$)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개별변인으로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는 둘 다 부정적일수록 집회 및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여기에 호혜성의 규범에서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된 경우 집회 및 시위참여에 적극적임을 알려준다.

<표 7> 사회적 자본변인과 집회 및 시위참여 상호작용성

소스	종속변수: 집회 및 시위참여		
	제III유형 제공합	F	유의확률
수정모형	126.895	2.481	0.000 (***)
절편	219.739	279.266	0.000 (***)
일반화된 타인신뢰	6.607	2.099	0.080 (#)
공적신뢰	12.226	3.884	0.004 (**)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1.973	0.627	0.644
일반화된 타인신뢰*공적신뢰	9.275	1.179	0.304
일반화된 타인신뢰*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7.402	0.784	0.667
공적신뢰*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34.321	2.635	0.000 (***)
일반화된 타인신뢰*공적신뢰*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중요도	24.671	2.240	0.006 (**)

R 제곱 = 0.242 (수정된 R 제곱 = 0.107)

< 0.1, * < 0.05, ** < 0.01, *** < 0.001

V. 연구의 요약 및 토론

본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시민형태로서 소셜 시티즌을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다양한 정치참여 동학을 사회적 자본 접근법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은 싱글레어의 지적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온라인화 한 것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새로운 관계가 재형성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집단과 개인적 참여를 가능케 한다.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ICT를 통해 과거 오프라인 수준을 넘어서는 몇 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연계되는 새로운

좁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를 구축하며 정치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Milgram 1967; Barabási 2002).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별 특징은 타인에 대한 불신($p < 0.001$)과 정부 불신($p < 0.001$)이 강하고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선호($p < 0.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가 낮다는 것은 선행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축적과는 다른 형태임을 발견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정치참여는 투표참여와 집회 및 시위참여에서 차이가 발견되는데, 투표참여는 적극적이지 않지만($p < 0.01$), 행동지향적인 집회 및 시위참여는 활발하다($p < 0.001$). 세 번째,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은, 먼저 투표참여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p < 0.05$), 고연령($p < 0.001$), 고학력($p < 0.05$), 저소득($p < 0.001$)이 채택되었고 집회 및 시위참여는 일반화된 타인신뢰가 강할수록($p < 0.05$), 정부를 불신할수록($p < 0.1$), 고학력($p < 0.01$), 저소득($p < 0.05$)일수록 강하다. 네 번째 연구가설인 사회적 자본의 변인들이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에 상호작용적인 속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사회적 자본의 3변인은 상호작용효과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 단계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특성과 정치참여 행태의 동학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특성은 낮은 신뢰의 개인적 속성이 강하지만 참여에 적극적인 시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저신뢰의 개인지향의 저항적 참여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시민들은 고신뢰의 공동체지향 참여를 그 특성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이 저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러한 불만이 저항적 참여를 선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불신은 저항적 참여의 주요한 원인이다. 나이 등(Nye et al. 1997)은 정부불신의 원인을 정책의 실패, 국민의 기대감과 정과의 차이 언론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한국에

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SNS 등을 통한 정치정보에 민감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2008년 촛불시위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다. 그것이 사실이나 허위일지라도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인터넷과 SNS에서 확산되고 ICT 도구를 활용하여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다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 축적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정부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에서 타인신뢰 변인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 차원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핵가족화 - 심지어는 단독 가구화 - 에 따라 전통적인 공동체 질서는 해체되고, 인터넷이라는 ICT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사회관계는 느슨한 연계로 재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경제적 불안, 병리적인 범죄의 증가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타인에 대한 불신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인 일반화된 신뢰의 하락은 개인문제만은 아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감은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치안의 문제나 범죄, 사회 불안감의 반영일 수 있다. 따라서 일반화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전통을 회복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도입과 공동체적인 질서를 재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 변인에서 학력과 소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력과 소득은 민주주의의 이행에서도 중요한 변수이고 특히 민주주의 공고화에서 올바른 시민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치발전론자들의 연구가 많다(e.g. Diamond 1999). 정치참여의 두 종속변인인 정치참여와 집회 및 시위참여 모두 사회경제 변인은 학력과 소득변인이 채택되었고 특히 두 회귀모델에서 모두 고학력과 저소득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 역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고학력과 저소득이 더욱 참여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자본의 정치참여 강화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퍼트남(2000)이 예견한 것과 다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저하되면 시민들의 참여도 하락할 것으로 예견했지만 본 연구결과는 다르게 도출되었다. 이는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에 대한 신뢰저하, 정부불신, 개인주의적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의 주요변인들이 모두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가지고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단일변인이 아닌 사회적 자본의 주요변인이 결합되었을 때 정치참여가 활발해진다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의 적실성은 확인이 된다.

다섯째, 현대 국가들의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주장한 노리스(Norris 2011)에 따르면 관습적인 형태의 참여인 투표참여는 저하하고, 정치적 무관심층이 증가하며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이 적극화·행동화하는 세계적 현상을 비판적 시민(critical citizens)이라 정의했다. 이러한 원인은 시민의식은 복잡해지고 다양하지만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은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녀의 이러한 분석은 한국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비해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최장집 2005).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ICT발전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들의 정보습득은 과거 어떤 때보다 활발하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나 소통의 미숙은 결국 정부의 정책불신으로 연결되고 이는 시민들의 관심사적인 이슈와 결부될 경우 저항적인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현 단계 한국의 지역갈등이나 정책도입 과정의 갈등은 모두 이와 연계되어 있다.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이 비판적인 시민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정부의 대응 역시 보다 다각적이고 사려 깊은 소통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여섯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저항적인 참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크로지어와 헌팅턴, 와타누키(Crozier & Huntington & Watanuki 1975)는 제도화되지 않은 참여의 과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네트워크화 된 소셜 시티즌의 참여를 제도 내적인 것으로 흡수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열기를 공동체성의 재형성과

신뢰향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예로,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운동과 지역 활성화는 향후 사회적 자본의 재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책적인 참여의 확대, 게시판 토론의 활성화, 제안방의 운영, 시민청원제도의 활성화 등의 ICT플랫폼의 활용과 정책결정권자의 피드백과 관심은 그 성과를 더욱 좋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동학을 파악하려 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일회적인 연구인 관계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분명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의 조작화와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구분했지만 스마트 디바이스의 적응도와 SNS의 사용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경우 보다 엄밀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 또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 류정호 (2010). “온라인자본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온라인 사회자본과 정치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4권 3호, pp. 5-26.
- 민병원 (2004). “세계화와 지식네트워크.” 한국정치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발표자료집.
- 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 송경재 (2005). “네트워크 시대의 인터넷 정치참여.” 『담론 201』. 8권 3호, pp. 123-161.
- _____ (2008). “e-사회적 자본으로 분석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능성과 한계 - 남양주 <화도사랑>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2권 2호, pp. 271-301.
- _____ (2010).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2: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동학의 변화.” 『국가전략』. 제16권 제4호, pp. 125-150.
- 신소연·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9권 4호, pp. 191-232.
- 우슬러너, 에릭 (2010). 『신뢰의 힘』. 박수철 역. 서울: 오늘의책.
- 윤성이·송경재 (2010). 『디지털 컨버전스 세대의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과천: KISDI.
- 이동원·정갑영 외 (2010).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승민 (2013). “스마트기기와 SNS활용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권 2호, pp. 161-180.
- 이승중·김혜경 (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조화순·송경재 (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정책참여: 단일이슈 네트워크의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5호.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최항섭·김희연·강현아·박찬웅·배영·배영자·윤민재·조현석 (2008). 『IT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방안연구』. 경기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CHU BAOJUN (2014). “소셜 미디어 이용이 참여적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2호, pp. 79-102.

- Barabási, Albert-László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링크 :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바라바시. 강병남·김기훈 역. 서울: 동아시아.
- Barnes, Samuel & Kaase, Max. (et al.)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Bourdieu, P. (1986).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astells, Manuel (2001). *The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rozier, Michel, Huntington, Samuel & Watanuki, Joji (1975). *The Crisis of Democra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Delany, Colin (2009). "Learning from Obama: Lessons for Online Communicators in 2009 and Beyond." www.epolitics.com (accessed on November 12, 2014).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 Plattner, Marc (2012). *Liberation Technology: Social Media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llison, Nicole B., Steinfield, Charles, & Lampe, Cliff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4). <http://jcmc.indiana.edu/vol12/issue4/ellison.html>. (accessed on December 18, 2014).
- Ester, P. & Vinken (2003). "Debating Civil Society: On the Fear of Civic Decline and Hope for the Internet Alternative." *International Sociology*. 18(6), pp. 659-680.

- Fraser, Matthew & Dutta, Soumitra (2009).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 Your Life, Work and World*. WILEY.
- Jones, Steve (1999).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 Thousand Oak, California: Sage.
- Kwak, Nojin & Holbert (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The World Bank*. <http://poverty.worldbank.org/library/view/14474>. (accessed on November 18, 2014).
- Lipset, Martin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Loader, Brian (2007). *Young Citizens in the Digital Age*. New York: Routledge.
- Milbrath, Lester W. & Madan La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 Milgram, Stanley (1967). "The Small World Problem." *Psychology Today*. 1(1), pp. 61-67.
- National Economic & Social Forum (2003).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um Report*. No. 28. Dublin Ireland: Government Publications.
- Newton, Kenne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pp. 575-586.
- _____ (200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Dalton, R. & Klinge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2011).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Zelikow, Philip, King, David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teman, C. (1970). *Participation &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 Prakash, Sanjeev, & Per, Selle (2004). *Investigating Social Capital*.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Quan-Haase, Anabel & Wellman, Barry (2002). "Capitalizing On the Net."
Barry Wellman & Caroline Haythornthwaite (eds.). *The Internet in
Everyday Life*. Blackwell Publishing Company.
- Rh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Perseus.
- Sinclair, Betsy (2012). *The Social Citizen: Peer Networks and Political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olle, Dietlind & Rochon, Thomas R.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2. No. 1, pp. 47-65.
- Tapscott, Don. (2008).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McGraw-Hill.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Indianapolis: Hackett.
- Sunstein, Cass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23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12월 09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8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4 (2014)

A Study on Networked Social Citizens and Social Capital

Kyong-Jae, Song

(Kyung Hee Institute for Human Socie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tical implications by taking note of the appearance of the networked social citizens. Concretely, this study is intending to analyze civil participation in political behavior by interpreting the 'Networked Social Citizens' constructed by IT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a social citizen suggested in the US through the use of Robert Putnam's social capital approach. This study applied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survey to the analysis methodology.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researcher defined the networked social citizen in Korea as 'a low trust individual-oriented resistant participatory citizens.' According to this result, it's possible to predict the political behavior of those who are familiar with IT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Particularly, in case of the analysis at a dynamic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discovered a differ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constituents of social capital. Accordingly, this study thinks that there is the need for institutional, political effort to re-construct the vulnerable structure of social capital in Korea.

▪ Key words: Networked Social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Information Age, Low Trust